

보는 바와 같이 外來思想을 攝取한 後에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傾向을 많이 볼 수 있는데 東學運動도 그 하나의 例라 볼 수 있다.

韓國思想과 西洋近代思想

洪 以 燮

※ 本 發表는 錄音이 없되어 要約으로써 代한다.

序——韓國思想과 外來思想과의 接觸에 있어 보다 오늘에 接近된 時期에 있어 또하나의 課題는 韓國社會가 資本主義列強과 接觸할 때 卽 近代化의 過程(實質的으로는 植民地化過程이었지만……)에 있어 精神的 狀況이 어떠한 것이며, 外來思想의 受容에 있어 어떠한었느냐? 이것은 곧 西洋近代思想과의 交涉이었다. 대체 時間的으로는 1870年代에 있어 近代化한 日本과의 接觸에서 부터 따져 볼 것이다.

1. 金玉均의 開化運動——金玉均이 近代化 途程의 日本을 通하여 西歐的인 文物을 받아들일라는 運動은 1876年 開港에 따른 日本文物에 接觸하면서 부터 이었다. 一部の 人士는 앞서 淸을 通해 世界大勢를 알고 있던 것이지만 보고 알고 생각한 것을 朝鮮의 開化(=近代化)를 위하여 써 불라고 생각한 바를 實踐할라고 努力한 사람은 아무래도 金玉均일 것이다. 1881年(辛巳), 遊覽團의 海外視察, 1883年에서 1年間 日本을 거쳐 美國·유럽을 視察한 美國에의 報聘使 一行은 近代世界에 눈을 뵈는 것이다. 그러나 淸日間의 朝鮮의 政情은 눈을 뜬 사람들의 생각을 두 갈래 分立시키었다.

2. 徐載弼과 俞吉濬——19世紀 末葉에 있어 朝鮮을 開化시킬라는데 있어 西洋의 近代的인 思想을 受容 實踐하는데 있어 代表的 두 사람을 通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徐載弼——金玉均이 日本遊學生을 보낼 때 한 사람으로 日本에 가서 軍隊訓練을 받고 돌아와 1884年(甲申) 政變때 開化派의 一員으로 海外에 逃避, 美國留學을 하게된 徐載弼은 1896年에 歸國하여 美國에서 보고 理解한 西歐的 民權思想을 通하여 朝鮮사람을 啓蒙하기에 힘썼다. 卽 獨立協會를 通하여 「독립신문」을 通하여 물론 自覺한 人士들이 共通되게 지니고 있었던 생각이지만 한자리에서 指導的인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2) 俞吉濬——1881年 日本 東京에서 福澤諭吉에게서 薰陶를 받았고, 이어 美國—유럽의 近代的 樣相을 보고 돌아온 俞吉濬은 甲申政變後 執權한 親淸的인 守舊派에 몰려 幽閉되었었다. 그는 이 幽閉中 日本—美國—유럽의 見聞을 主로 日本人 文獻에 依據하여 整理하였다. 그것이 「西遊見聞」이다. 이 책은 朝鮮사람이 西歐近代社會의 樣相을 綜合的으로 體系있게 紹介한 唯一한 文獻이

며, 또 이 책을 통하여 朝鮮의 開化를 主張하였다. 經濟的인 發展—資本主義化, 民權의 強調—民主主義精神의 確立을 主張하였다.

3. 植民地化過程에 있어서의 諸精神——두 사람의 思想을 通해 西歐的인 思想에 接하였을 뿐 아니라 直接 近代文化의 一面을 國內에서 日擊하며 諸外國人의 出入에 따라 그 思想的인데 接하였으나, 그 受容—展開에 있어 特質的인 條件으로 當時의 朝鮮이 「日本」의 侵略에 따라 植民地도 轉落되고 있어 西歐思想의 理解—消化에 있어 「朝鮮」의 實情을 濃厚하게 反映시키게 되었다.

〈質疑應答〉

〈司 會〉

그러면 質問을 받겠습니다. 質問은 要約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質 問〉

先生님 말씀에서 어떤 歷史的 問題와 動機에 대하여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現實的 要因에 대하여 先生님께서 어떤 精神的인 要素를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西歐의 우세를 화약이나 수증기의 힘에 의한 武力的, 帝國主義的 要素만 생각하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精神的으로 맞설 무엇이 있다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科學과 科學을 만드는 原動力, 歷史의 原動力이 무엇입니까?

〈司 會〉

간단히 말하면 歷史의 原動力이 무엇이냐는 말씀이시지요.

〈 朴 〉

나는 그러한 것 까지 다루지는 못합니다. 매우 어려운 問題입니다. 구태여 말하자면 다 心要합니다. 結論에서 말한 우리 思想이 들어난 때의 實現이 원동력인 것입니다. 原動力은 다른 것이 아니라 精神的인 것인 同時에 客觀的인 것을 다 master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한 歷史의 原動力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계하여 말한다면, 요사이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을 하고 있는데 내가 哲學을 하여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 돈이 없이 거리를 걸으면 걸을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이는 무엇이나하면 經濟的 條件, 客觀的 條件이 重要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5 個年計劃은 人心이 나쁘고 올바른 道德的 生活을 못하게 된 이때 매우 重要하긴 합니다. 經濟條件이 좋아져야 하고 또 事實 經濟條件이 나쁜것만은 사실인데 이러면 올바른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잘 하려고 한다면 이것의 擔當者는 經濟的 條件이 좋은 者라야 합니다. 이렇다면 누가 합니까. 아마 外國人이 하여야 하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5 個年計劃에는 前提가 있어야 합니다. 經濟的 條件이 나쁜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하려면 매우 생각이 올바러야 합니다. 그러면 經濟的 條件이 나빠도 精神만을 올바러야 한다는 前提가 있어야 합니다. 即 精神的인 面이 앞서야 한다는 前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 두 面을 같이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人心이 좋아지는 것은 事實입니다. 孔子도 富한 것이 教育보다 앞선다고 했습니다.

義務教育이 云謂되나 돈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와 同時에 孔子는 信이 食보다 重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退溪의 말과 같이 孔子의 처음 말은 平常時의 일이고, 非常時에는 信이 있어야 百姓이 서고 나라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即 非常時에는 信이 先行합니다. 經濟的 條件이 나쁜 때는 信이 問題가 됩니다. 아무리 建設工事が 활발하더라도 信이 없을 때는 이것이 虛事입니다. 歷史의 原動力은 여러가지 있으나 또 무엇이라고 연상할 수도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닌 人間이 人間으로서 제대로 설 때에 무엇이 主가 되고 무엇이 輔

점이 되는 것이, 움직임이 바른 것이 바로 歷史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 質 問 >

質問의 要旨은 우리가 못사는 理由가 어떤 精神面에서의 결여에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西歐가 앞선 것은 protestant에 있고 또 이는 中國이나 印度의 思想보다 앞선 것이 아닌가 합니다. 日本이 中國이나 우리나라 보다 앞선 것은 天皇思想에 있지 않나 하는 게요, 先生님 말씀은 우리가 西歐에 떨어진 것은 科學的인 面에 있지 精神的인 面에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精神的인 面에서 어떤 떨어진 것이 있지 않을까요?

< 朴 >

科學的인 面에서의 落伍가 事實이고 精神的인 面에서 잠깐 공백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面이 상당히 들어올 可能性은 있었으나 아마 뒷 분이 言及하실 것이라 생각 하지만 특히 天主教 탄압과 관련되어 길이 막힌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要求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래서 結論的인 面을 지향하기는 하였으나 이것이 순조롭지 않아 오늘날 더욱 문제가 됩니다.

< 司 會 >

이 問題는 朴先生님 말씀대로 다음 분이 言及하실 것 같고 또 時間關係上 그만 고치고 한분만 質問을 더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姓名, 專攻, 職場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質 問 >

先生님께서도 우리 나라에서 科學的인 面에 發展이 없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힘이 없었고 西洋에서는 이 점이 強했다 하셨는데 그럴 한국 사람에게서 서양에서의 eros pathos的인 學問的 열망이 없었습니까?

< 朴 >

이것은 내가 너무 간단히 말하여 나온 당연한 질문입니다. 西洋사람들은 技術面에 있어서 자꾸 응용하여 보니까 밖으로 확장하는 힘이 되었고 또 加速的으로 뒷바침된 것 같습니다. 科學에서도 經濟的인 것이 많이 뒷바침되는데 이를 적용하여 보면 物資를 얻는다든지 또는 팔아서 利得을 얻는다든지 하여 돈이 많아지면 資本主義가 形成되고 힘이 더욱 생겨 더욱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學問的 열망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 저쪽에서는 科學的으로 發達하고 또 아는 것이 힘이란 效果가 나서 뒷바침하다보니 매우 효과가 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 司 會 >

다음 質問은 李箕永先生한테의 질의인데 “一般的으로 말하여 外來文化를 받아들일 수 있는 生活的인 條件과 또 의욕적인 面을 생각하게 되는데 佛敎의 發生地나 基督敎의 發生地에는 前者의 條件이 우리만 못하다. 佛敎가 中國에서 盛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는 것입니다. 그럴 李先生님, 이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 李 >

質問의 要旨가 明確하지 않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基督敎의 發生地에는 物質과 精神의 條件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빈한하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데 우리 나라나 中國의 형편은 좋았다. 또 여기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종교가 없고 또 中國도 그러하다.” 이런 質問인 것 같습니다.

發生한다는 것과 到來하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어디서 發生할 수 있는냐의 問題와 알아 들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條件에서 發生했는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必然的 條件에서 그러하다는 것은 歷史에서 보다 宗教自體의 宇宙觀에서 說明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神學的인 面에서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歷史의 우연성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받아드린 側을 보면 佛敎나 基督敎가 들어 오는데 좋은 條件 또는 나쁜 條件이 있을 수 있는데 兩者가 다 可能的인 것

입니다. 다만 兩地域의 到來의 經路와 收容의 態度에 差異가 있을 뿐이지 이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이야기할 性質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卽 가난과 裕足은 이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中國에는 宗教가 없었다고 하나 中國에는 佛敎와 같은 要素가 있으며 또 佛敎가 中國에서 환영을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佛敎가 中國에 들어 올 때는 思想的 要素라든가 主體性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儒敎가 있었고 道敎의 先行哲學思想이 있었는데 단지 이들이 결핍한 條件때문에 中國인이 佛敎를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儒敎가 가지지 못한 條件은 무엇이나하면 그것은 未來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未來를 내다보며 現在와 現在를 說明하는 歷史觀이 中國의 古有思想에는 強調되어 있지 않았던 點이기 때문에 中國에서는 宗教的 열망의 충족의 조건이 있었고 佛敎가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은 조건이 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 質問이 있는데 이것은 “人間의 內面的 生の 充實을 위해서는 外面的 條件이 있어야 하는데 佛敎에서는 이 면이 없다. 이것은 佛敎가 힘을 펼 수 없는 條件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質問者는 商大生으로 商大生다운 질문입니다. 商大生들은 아마 Max Weber의 思想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Weber에 依하면 프로테스탄트의 資本主義 要素가 重要한 精神史가 되는데 이와 같은 질문은 佛敎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잘못 이해된데에 기인한 듯 합니다. 지금까지는 佛敎는 中國에서의 解釋에 억매었고 오늘날 近世以來의 西洋에서의 宗教的 倫理의 觀點에서 보면 佛敎의 價値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또 再發見되지 않았다는 형편이고 이는 커녕 우리에게는 인습적인 해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에 서와 같은 우려는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佛敎의 經濟的 思想이란 것이 재천명될 수도 있고 또 이를 위하여 原典으로 돌아가 研究하고 過去와 같은 의곡된 이해를 本質的인 經典의 解釋때문에 고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根據를 들면 四縮에서 滅縮로 가는 道縮의 役明은 具體的으로 보다 넓고 넓은 觀點에서 생각하면 좀 더 現實的인 理論을 얻을 수 있습니다. 勿論 이것이 프로테스탄트처럼 악착할지는 몰라도 긍정할 수 있는 思潮의 基盤이 佛敎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誤解는 誤解이나 그렇다고 하여 佛敎가 現在에는 이를 說明할 思想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司 會 >

지금 質問은 商大의 金수필君과 文理大의 金장환君입니다. 다음은 柳洪烈선생씨의 질문인데 “우리 나라에 天主教가 들어오는데 政治的 탄압이 있었으나 民間에서 天主教의 信仰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나라 思想體系속에서 다시 檢討할 것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 柳 >

史學科 盧興權君의 質問인에 迫害를 무릅쓰고 繼承된다는 點에 着眼한 質問입니다. 나는 天主教를 받아 들이게 된 것으로 當時는 신앙적으로 白紙의 狀態이고 또 政治에서 떠난 사람들이 實學에 沒頭하다가 天主教를 믿게 된 것이고 또 本來의 하늘 崇拜의 잠재의 식과 결부되어 敎會가 설립되었다는 세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天主實義」가 번역될 때는 儒敎思想과 比較되었었습니다. 그런데 儒敎思想을 잘 알고 있는 實學者들은 儒敎思想에 큰 厭症을 품고 있어서 여기서 큰 同感을 얻은 것입니다. 天主教가 약 100年間 存續되는데 이 중에서 10年은 神父가 없었습니다. 네번이나 큰 박해를 받았는데 이 박해는 대개가 本人만을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그 後孫, 특히 南人이 時派가 쫓겨났습니다. 이들 中에는 階級을 없앨려는 運動도 나타나는데 이는 聖堂에 가면 양반과 상인이 같이 앉을 수 있다는 點에서 나타나고 이點이 또한 傳道의 容易함인 것입니다. 佛敎도 박해를 받았으나 지속하여 오고 天主教도 그러한데 이것은 얼마전 Readers Digest 讀者는 “韓國의 文化가 많은 것은 산악이 많은 것이다. 戰亂이 나도 산악에서 보존한다.”라고 指摘했는데 이것은 天主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天主教는 주로 서울 忠淸道 全羅道에 퍼졌는데 박해를 받을 때는 태백산 소백산에 들어가 옹기장사 같은 천직에 종사하며 전국적으로 돌아다닙니다. 兩班도 職業을 전환하여 장사를 하는데 이것이 기독교에서 직업을 가리

지 않는 정신 卽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은 구한다는 정신을 솔선 수범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山嶽덕택인 것입니다. 天主教에 反動的으로 일어난 것이 東學運動인데 최제우는 天主教의 범람을 보고 天主教의 본을 많이 따서 道教思想과 연결되어 東學運動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暴濟救民이었다가 나중에는 斥洋斥倭가 되는데 아무튼 天主教는 東學에까지 連結이 되는 것입니다.

< 司 會 >

다음에는 商科大學의 김수내군의 질문으로 洪以燮先生께 “韓國에 있어서 近代化가 이루어 지지 못한 理由를 韓國思想의 立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하는 것입니다.

< 洪 >

韓國近代化가 이루어 지지 못한것은 여러면에서 볼 수 있으나 精神面에서도 불만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따로 떼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社會經濟面에서의 뒷바침이 있어야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卽 이는 양팔과 같아서 따로 떼어서 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傳統的 社會의 社會構造와 經濟問題인데 어떠한 具體的인 것을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어떻게 整理된 研究가 없습니다. 近世에서는 매우 依存的인 것이었는데 中間에 이에 대하여 現實에 立脚한 批判的 精神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精神은 社會에 용납될 수 없어서 個人的인 것이 되었읍니다. 依存的인 것은 또한 폐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批判하고 깨뜨릴려고 한 것입니다. 洪吉童傳을 지은 許均이라든지 星湖 燕岩 茶山등이라든지는 特히 朴齊家是 海外貿易을 主張하였는데 이것이 폐쇄적인 것을 開放하여 脫皮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地理的인 環境를 보면 지금에 와서는 地理的인 影響을 받는 것이 별로 없지가는 韓半島는 中國大陸의 구석에 있고 앞에 있는 日本과 琉球가 가리고 있습니다. 前에는 漁夫가 표류한다면 東南은 日本, 西南은 福建이 限界가 되고 혹 印度支那까지 가는 수도 있습니다. 日本側 記錄에 依하면 全羅道배가 太平洋쪽으로 흘러간 것이 있는데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이것을 除하고는 太平洋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韓半島를 가리고 있는데 이것이 過去의 地理的 條件이 한국을 폐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中國과 日本을 比較하여 보면 日本은 西洋을 모방하고는 있으나 아무튼 東洋에서의 近代化國인 것입니다. 中國은 여러가지 면에서 日本보다 條件이 有利하나 近代化가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은 좀 생각하여야 할 점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比較는 韓國의 近代化 理解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近來에 美國等地에서 中國이나 日本의 近代化問題가 활발히 研究되고 있는데 여기에 연관시켜 한국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韓國을 日本과 比較하여 보면 經濟的으로 뒤 서고 있고 또 思想面으로 보면 17세기 이후 重商都市가 발전하여 市井人들은 장사하여 먹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市井人學者의 自由的 思想이 發展한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 國家權力과의 連關없이는 學問이 서지 못합니다. 實學系의 學者들은 비록 벼슬을 하지 않았으나 身分的으로는 兩班階級이고 또 이런 家庭에서 나와 공부한 것입니다. 文集이란 것도 모두 兩班의 것이고 通文館志의 著者 金慶門이 中人이라 하나 이는 國家에서 시킨 것입니다. 末期에 들어오면 中人的 文集이 좀 있으나 대부분 詩集이고 思想的으로 불만한 것이 없습니다. 學問思想은 兩班의 것이고 市井으로 뻗어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研究할 問題라 봅니다. 質問하신 中에 産業化, 民主化, 國民化란 말이 있는데 國民化란 말은 西洋말의 번역인듯 하지만 무슨 意味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近代化에서는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政治 經濟 精神의 3者가 各各으로 움직일때 近代化가 可能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문제에 있어 各方面의 研究를 綜合하여 따져야할 것 같습니다.

< 司 會 >

이왕 나온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洪선생께 대한 질문인데 商大의 홍문신君의 질문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만 中央公論에 發表된 라

이샤위의 論文을 보면 “日本과 구라파를 비교하여 보면 封建制度란 공통점 때문에 日本에서의 近代化가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샤위는 中國과 日本의 近代化를 比較하면서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 中國과 韓國의 條件이 비슷하므로 近代化가 늦은 것이 아닙니까”하는 질문입니다.

〈 洪 〉

라이샤위의 論文이 中央公論에 나왔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직 못 보았습니다. 本質적으로 보면 이것이란 條件이 됩니다. 日本의 封建制와 Europe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日本은 極東에 있어 獨特한데 城廓을 예를 들면 中國과 韓國은 나성이고 그안에 宮殿이 있고 商人이나 住民이 사는데 日本은 古代에는 都市制度를 가졌으나 中世 封建社會의 發展단계에는 領主를 中心한 城廓이 形成됩니다. 그리고 中國式 나성이 없어집니다. Europe에서의 封建領主의 城과 日本의 그것과는 비슷합니다. 城아래에 都市가 發達하는데 이것은 極東에 日本만 있는 例입니다. 이것이 社會構造 乃至 產業發達에 中國과 韓國에 比하여 日本이 獨特한 것입니다. 저 自身도 이런 것이 한 條件이 된다고 생각하며 또 다른 분들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文字化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西洋人이 먼저 整理하고 文字化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 質 問 〉

日本과 中國·韓國의 近代史에 根本적으로 다른 것은 武士階級을 爲始한 封建制度와의 關係되는 것이 日本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데요?

〈 洪 〉

武士精神이 日本을 近代化시켰나 아닌가는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西洋사람은 흔히 東洋의 獨特한 것이 있으면 이것을 合理化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Weber의 精神과 武士精神과를 한번 比較하여 보시지요.

〈 司 會 〉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近代化에 관한 Symposium”을 昨年에 했는데 그 速記錄이 震檀學報에 있습니다. 더 할 質問은 많겠으나 時間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그만 끄치겠습니다.

9月 28日

〈 司 會 〉

社會階層이란 問題는 現代社會을 理解하는데 不可缺한 社會學的 課題의 하나입니다. 特히 社會發展의 程度에 甚大한 差異를 가진 多樣한 部分社會로서 構成되고 있는 所謂 後進社會에 있어서는 社會階層構造의 理解없이 어떠한 効果的인 社會開發도 圖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社會階層問題를 오늘의 論題로 택하여 본 까닭도 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서로 混同되기 쉬운 階級과 階層에 대한 概念規定으로부터 시작하여 韓國社會에 있어서의 階層의 實相을 農村과 都市로 區分 考察하고, 이어서 오늘날 肥大化의 一路에 있다고 하는 中間階級の 實體와 그 特有한 階級的 性格 및 階級意識등에 關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順序에 따라 오늘의 심포지움을 進行하겠습니다.

階級과 階層의 概念에 대하여

黃 性 模

過去 一世紀동안 社會科學에 있어서 階級の 問題처럼 허다한 論爭의 對象이 된 것은 없었다. 그것은 現實政治分野에 있어서 數많은 사람들의 政治的 運命